

기술분석보고서 IT

코나아이 (052400)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양진영 연구원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코나아이(052400)

결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핀테크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

기업정보(2025.06.04 기준)

대표자	조정일
설립일자	1998.03.11
상장일자	2001.10.18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IT
주요제품	전자금융, 교통카드시스템, 스마트카드, 단말기, 수집, 정산시스템 개발, 도매

시세정보(2025.06.04 기준)

현재가(원)	59,00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8,592
발행주식수	14,563,291
52주 최고가(원)	70,300
52주 최저가(원)	12,000
외국인지분율(%)	2.22
주요주주	조정일, 조재현, 조남희, 조임

■ IC 칩 운영체제에 기반한 핀테크 플랫폼 전문기업

코나아이(주)(공시회사명 ‘코나아이’, 이하 동사)는 1998년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을 시작으로 설립되었으며, 디지털 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IC 칩 운영체제 사업과 결제 플랫폼 관련 사업을 중점 전개하고 있다. 특히 4대 핵심 플랫폼 사업을 '결제, DID, 모빌리티, 블록체인'으로 설정하여 가치창출을 추구하고 있으며, 핀테크 분야에 대한 다방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동사는 확보된 인프라 및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스마트카드 및 플랫폼, 카드사 IC 발급시스템 개발 등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 국제규격(EMV)의 결제 플랫폼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동사는 자체 개발한 IC 칩의 운영체제 기술인 COS(Chip Operating System) 기술 보유를 통해 IC 칩 및 스마트카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관련 기술은 국내 최초로 버스-지하철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으며,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 IC 칩 및 스마트카드를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COS는 금융, 통신, 공공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한 연결 및 인증을 위한 보안 솔루션으로 활용되고 있다.

■ 선불전자업체 등록 요건 강화로 인한 경쟁력 확보

2024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업에 등록하기 위한 인적, 물적 요건이 강화되었으나 동사는 선불카드 발행과 결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 ‘코나플레이트’를 구축하였고, 자체 선불카드 서비스 등을 보유하고 있어 마일리지 및 포인트의 형태로 충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 유통업, 배달 대행사 등의 고객사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2,422	24.5	488	20.2	343	14.2	24.43	4.70	174.8	2,206	10,912	7.39	1.49
2023	2,802	15.7	337	12.0	289	10.3	18.18	6.70	166.6	1,945	13,072	9.20	1.37
2024	2,363	-15.7	334	14.1	302	12.8	16.19	6.90	108.9	2,029	13,688	13.63	2.02

기업경쟁력

핀테크 기술력 및 결제 인프라 혁신	자체 개발한 COS(Chips Operating System, 칩 운영체제) 기술을 통해 높은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카드 시스템 구축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제3자의 기술과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비즈니스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 내재화 IC 칩 및 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화폐, 알뜰폰, 택시 호출, 리서치 마케팅 플랫폼 등 서비스 및 플랫폼 사업 영위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칩 운영체제 기술력 보유	컴퓨터 CPU와 유사한 자체 연산 기능을 갖춘 IC 칩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카드 보안매체 경쟁력을 갖춘	위변조 불가능한 IC 칩 및 스마트카드 첨단 보안 기술이 적용된 IC 칩 및 스마트카드 
디지털 인증 기술	개인의 신원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 네트워크에 저장·관리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 위·변조와 해킹 위험을 크게 줄이고 있음	

시장경쟁력

차별화된 COS 및 스마트카드 원천기술 보유	자바 오픈 플랫폼 기반 COS와 IC 칩 기술, 지문인식 등 첨단 인증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금융·통신·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스마트카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카드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글로벌 시장 성장	북미·유럽 등 90여 개국에 스마트카드와 IC 칩을 수출하며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해외에서 창출하고, 메탈카드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해외 판매가 꾸준히 증가해 글로벌 시장 내 입지와 브랜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디지털 ID, 지역화폐 등 플랫폼 사업 다각화	디지털 ID(DID)와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분야에서 국내외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전국 60여 지자체에 결제 플랫폼을 공급하며 선불형·충전식 결제, 모빌리티, 복지,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규 사업 포트폴리오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ISO 14001 인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 스마트카드 생산과정 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플라스틱 카드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 ◎ 카드형 지역화폐는 기존 종이상품권의 생산, 운송,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과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축소하여 친환경 경영에 기여함
	◎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도입 및 확산은 물론 사회공헌 재원을 통한 소상공인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S 사회책임경영	◎ ISO 9001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ISO 45001 인증 기반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시 ◎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대 활동: 휴게실 운영, 교육훈련 기회 제공, 장기근속자포상 등 다양한 복지 제도 운영
	◎ 이사회 운영(상근이사 4명, 비상근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주주 현황 및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 주주 친화 정책으로 연차 배당 실행 및 자기주식매입 및 소각 실행 중임
G 기업지배구조	

I. 기업 현황

보안 인증으로 검증된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결제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핀테크 전문기업

동사는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전자화폐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COS(Chips Operating System, 칩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디지털 인증, 결제 플랫폼, 모빌리티, 블록체인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 기업개요

동사는 1998년 3월 교통 인프라 디지털 전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2002년 교통카드 사업 매각 이후 스마트카드 사업에 진출하여 턴어라운드(turn-around)에 성공하였으며, 2012년 3월 케이비테크놀로지(주)에서 코나아이(주)로 사명 변경하였고, 현재 자체 개발 COS(Chips Operating System, 칩 운영체제)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인증 사업 및 결제 플랫폼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주요연혁 및 대표이사 주요이력

동사는 1998년 3월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버스와 지하철을 통합한 ‘하나로 교통 시스템’을 개발 및 상용화하였고, 전자화폐 산업을 선도한 동사는 2001년 10월에 코스닥 상장하였다. 이후 2002년 교통카드 사업을 매각한 동사는 스마트카드 사업에 진출하여 2003년 글로벌 플랫폼 기반 스마트카드의 COS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2005년 IC 카드의 국제표준규격(EMV) 인증을 획득하였다. 동사는 자체 개발한 COS 기반의 디지털 인증 솔루션을 활용하여 2007년 세계 최초로 NFC USIM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2009년에는 태국에 전자주민증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동사는 2018년 국내 최초로 IC 카드형 지역화폐인 ‘인처너’ 카드를 발행하였으며, 현재 전국 60여개 지자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10조 원의 결제 규모로 지역화폐 1위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 2021년 1월에는 지역화폐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코나체인’을 출시하였으며, 같은 해 6월 택시 호출 플랫폼인 ‘동백택시’를 론칭하였고, 2023년 2월에는 앱미터기를 출시하였다. 2023년에는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 ‘코나 플레이트’ 및 가상이동통신망(MVNO) 알뜰폰 브랜드 ‘모나’를 출시하였으며, 2024년 국내 최초로 보안 인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 ‘INTERGRAF ISO 14298’ 인증을 획득하였다.

그림 1. 주요연혁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대표이사 조정일은 1998년 3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동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년간 축적된 기술 사업화 경험을 토대로 동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종속회사 및 주주현황

동사는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북경심결과기유한공사, KEB TECHNOLOGY INDIA PVT. LTD., KONA SOFTWARE LAB LIMITED, 코나아이파트너스(주), 아트마이닝(주), 코나체인(주), KONA 재팬 합동, 코나엠(주)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표 1. 종속회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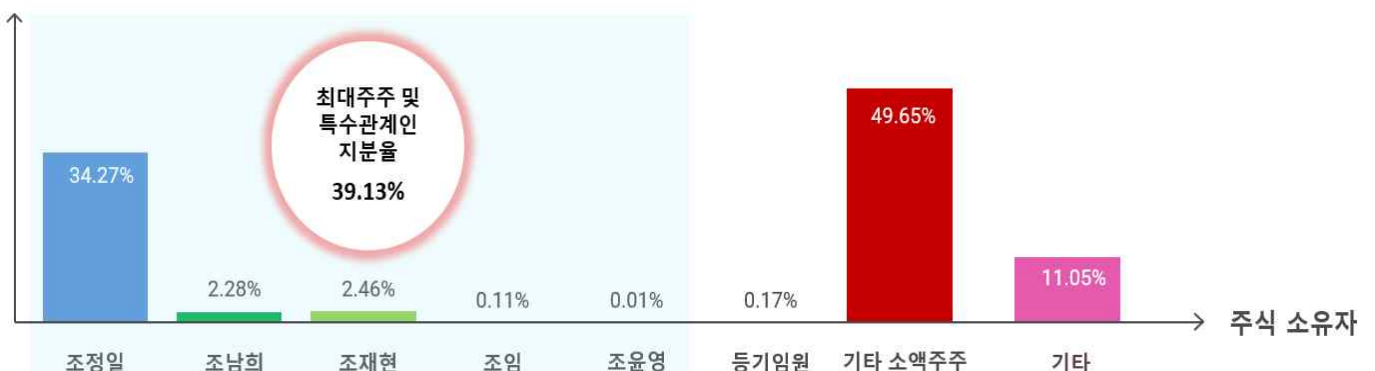
회사명	주요 사업	현황	매출액(천 원)*
북경심결과기유한공사	카드판매업	중국 시장 내 스마트카드 및 디지털 결제 지원	24,492
KEB TECHNOLOGY INDIA PVT. LTD.	카드판매업	인도 시장 내 IC 칩 및 보안 인증 관련 기술 기반으로 스마트카드 및 디지털 결제 지원	-
KONA SOFTWARE LAB LIMITED	연구개발	방글라데시 현지 엔지니어 100여 명이 상주하며 차세대 전자결제 시스템 '코나 통합 플랫폼' 개발 중	4,755,534
코나아이파트너스(주)	투자업	4차 산업의 신성장산업 영역의 핵심 기업에 투자 중이며, 2023년 사용자의 온라인 행동 기반 CRM 마케팅 솔루션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페어리'에 시드투자 집행	1,021,748
아트마이닝(주)	소프트웨어 개발 외	아티스트의 발굴 및 홍보, 콘텐츠 프로모션을 전문으로 하는 아트 플랫폼 기업에 해당함	122,405
코나체인(주)	소프트웨어 개발 외	블록체인 기술 기반 리서치 플랫폼, 디지털 거래증명 플랫폼 등을 제공함	1,645,977
KONA 재팬 합동	영업컨설팅 및 지원 외	일본 시장 내 IC 카드, IC 모듈 등 하드웨어 제품의 기존 판매 외에 일본 주요 인쇄사를 비롯한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협업 및 협력을 통해 개발된 디지털 결제 솔루션 제공	302,997
코나엠(주)	카드제조업 외	스마트카드 제조 전문기업으로 매출 중 약 8~90%는 코나아이(주)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며, 최근 실적 호조로 2024년 코나아이(주)가 코나엠(주) 지분 전량 인수함	59,636,353

* 2024년 12월 31일 결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 BizLINE 재가공

그림 2. 주주현황

지분율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2024년 12월 사업보고서 기준, 동사의 최대 주주는 창업자인 조정일 대표이사로 5,106,659주(34.27%)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 사내이사 조남희가 340,831주(2.28%), 조재현이 364,316주(2.46%), 조임이 16,742(0.11%), 조운영이 1,900주(0.01%)를 보유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9.13%를 나타내었다. 창업자 조정일 대표이사는 창업 이래 코나아이(주)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자로 북경심결과기유한공사, KEB TECHNOLOGY INDIA PVT. LTD, KONA SOFTWARE LAB LIMITED 등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창업자 외 5% 이상 주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사업 분야 및 매출현황

동사는 코나카드, 콤비카드, 통신카드와 같이 다기능 전자화폐를 제조 및 공급하는 스마트카드 사업, 결제 및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COB(Chip On Board) 외 사업, 코나머니, 코나 플레이트, 코나애플리케이션 등 결제, 블록체인, 모빌리티 등 다양한 핀테크 플랫폼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 은행 및 카드사 등의 SCMS(Smart Card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는 SI(System Integration) 외 사업을 종속회사와 함께 주요 사업 분야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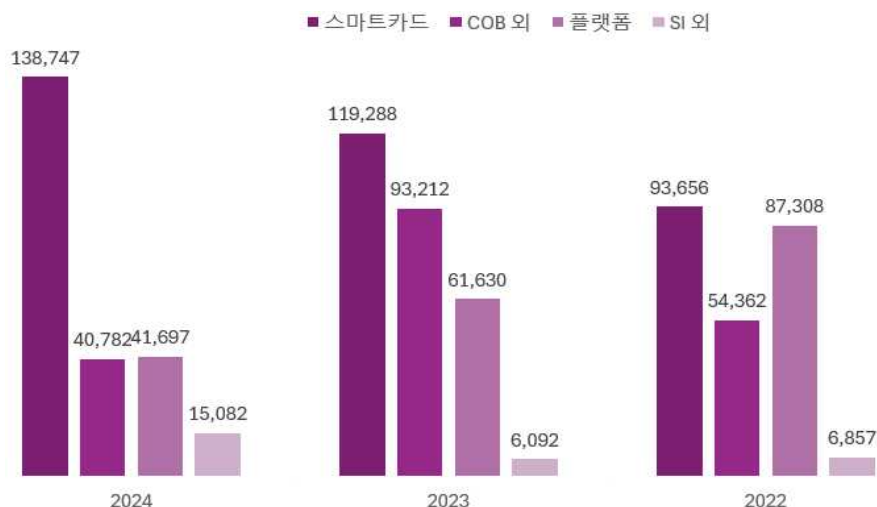
표 2. 사업 분야

사업부문	품목(유형)	주요 사업의 내용	매출액 (백만 원)	매출 비중(%)
스마트 카드	코나카드, 콤비카드, 통신카드	-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하여 전자금융 사업용 제품 공급 - 통신사와 협업하여 맞춤형 요금제 및 결제 솔루션 제공	138,747	58.7
COB 외	COB 외 (스마트카드 제작용)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용 IC 칩 제조 및 공급 - IoT, AML, 커넥티드 카 결제, 디지털 자산 관리 등 사물을 인증하는 보안 솔루션 제공	40,782	17.3
플랫폼	코나머니 외	결제, 블록체인, 모빌리티 등 다양한 핀테크 플랫폼 운영	41,697	17.6
SI 외	S/W 개발 외	- 전자 금융 서비스를 위한 카드발급 시스템 구축 -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모바일 앱 및 웹 기반 결제 시스템	15,082	6.4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평가정보(주) 재가공

그림 3. 사업 부문별 매출액 구조

(단위: 백만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 시장 동향

스마트카드 기술의 진화와 신규 응용시장 확대가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스마트카드는 데이터 보안성과 정보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디지털화 트렌드와 융합해 금융, 통신, 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 스마트카드는 보안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산업 전반에 필수 매체로 자리 잡고 있음

스마트카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 칩 운영체제(Chips Operating System, COS) 등 소형 컴퓨터의 핵심 기능을 탑재하여, 단순 결제뿐 아니라 데이터 저장, 암호화, 인증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스마트카드 시장은 글로벌 디지털화, 비접촉 결제 확산, 보안 강화 요구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 중이다.

Global Information(2025)의 스마트카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카드 시장은 2024년 172억 3,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8.1%로 성장하여 2032년 321억 3,0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2년 이후 동일한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2034년 375억 5,0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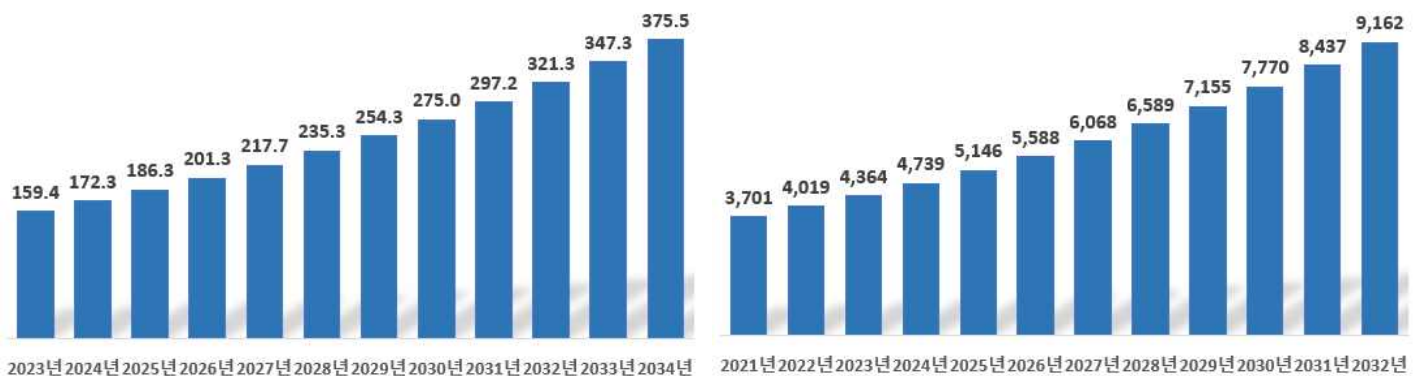
또한 국내 스마트카드 시장은 2021년 3,701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8.59%를 기록하며 2026년 5,58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이후 동일한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2032년 9,162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기능의 확장, 서비스 융합으로 스마트카드에 대한 국내외 수요의 증가가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세계 스마트카드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그림 5. 국내 스마트카드 시장규모

(단위: 억 원)



출처: Global Information(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최근 신용카드, 교통카드, 공공기관 인증, 의료보험,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카드가 활용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권 등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통신 부문에서는 SIM 카드와 USIM 카드 등 모바일 통신과 인증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며, 공공 부문에서는 전자주민증, 전자여권, 각종 ID카드 등 신원확인 및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카드는 기존 마그네틱카드가 가진 복제·위변조 위험성과 정보 저장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로 평가받으며, 산업계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카드는 반도체(IC Chip) 제조 기술, 칩 운영체제 개발, 카드 제조 등 복합적이고 고도화된 기술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로, 기술력과 신뢰성이 시장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 디지털화 · 보안 수요 증가와 기술 융합으로 시장 성장세 지속

스마트카드 시장은 디지털화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M2M(Machine to Machine, 사물지능통신),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등 첨단 산업 영역으로 응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문 · 얼굴 등 생체인식 기능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카드와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메탈카드 등 신제품의 개발도 활발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비접촉 결제, 모바일 인증, 디지털 신분증 등 새로운 서비스 트렌드로 인해 스마트카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융, 공공, 통신 등 전통적 산업뿐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영역까지 시장을 확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21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IC Chip) 공급 부족 현상으로 카드 공급자 우위의 시장 환경이 형성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공급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시장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났고, 스마트카드 수요는 금융권, 이동통신사, 공공기관 등 발급 주체의 영업 정책, 투자 규모, 마케팅 전략, 국가 정책 및 경기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신용카드, USIM 카드, 각종 ID 카드 등에서 신규 발급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스마트카드 시장의 활성화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스마트카드 산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23년 9월 개정되어 2024년 9월에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교통카드, 선불카드 등)의 발행 · 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 등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으로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마트카드 기반 선불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도화와 감독 강화로 카드업계와 핀테크 업계 모두 새로운 고객층 확보와 서비스 혁신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스마트카드 시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여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기관별 시장전망

세계 스마트카드 시장은 2024년 172억 3,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8.1%로 성장하여 2032년 321억 3,0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마트카드 산업은 휴대폰의 이용 급증과 IoT 기술로 인해 강력한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방법에 대한 요구 증가가 시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Global Information

글로벌 스마트카드 시장 규모는 2024년 187억 달러로 추산되며, 2029년 282억 달러로,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 8.6%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 Mordor Intelligence

이러한 성장 전망은 모바일 및 IoT와의 통합 등의 기술적 요인과 비대면 · 비접촉 서비스 확산, 금융 · 공공 ·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디지털 신원 · 결제 수요 증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 경쟁업체 현황

스마트카드 산업은 IC 칩, 칩 운영체제, 카드 제조 기술 등 핵심 보안·인증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금융, 통신, 공공 등 다양한 산업과 업무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Thales(프랑스), Giesecke & Devrient(독일), IDEMIA(프랑스) 등 유럽계 3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바이오스마트, 유비벨록스(주), (주)셀피글로벌, 엑스큐어(주) 등의 기업이 스마트카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현황은 아래와 표와 같다.

표 3. 경쟁업체 현황

기업명	경쟁업체
(주)바이오스마트	- 국내 스마트카드 제조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신용카드, 전자공무원증, 사원증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중 - 충남 아산공장에 자체 생산설비를 보유 중이며 2023년 약 4,120만 장의 신용카드를 생산함 - MasterCard, VISA, JCB 등 국제 카드사 제조와 K-Cash(한국 표준 IC 카드) 품질 인증을 보유함 - 친환경 소재, 메탈카드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도 주력 중임
유비벨록스(주)	- 스마트카드, 모바일 솔루션, 블랙박스 및 지도 플랫폼 등 다양한 IT 기반 사업을 영위 중임 - 국내외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자체 COS와 스마트 IC 칩을 탑재한 제품을 공급 중임 - 접촉식, 비접촉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스마트카드와 암호화·보안 기술을 보유 중임 - 마이데이터, IoT 인증·보안, 블록체인·AI 등 IT 융합 서비스로 사업 확대 중임
(주)셀피글로벌	- 신용카드 ID 카드, 지역화폐카드 등 다양한 스마트카드를 제조 및 공급 중임 - VISA, MasterCard, JCB 등 글로벌 제조인증을 보유하며 매출의 95% 이상이 신용카드 제조에서 발생함 - 금융, 교통, 통신,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 미국 현지법인 설립과 메탈카드 등 고품질 제품 출시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 중임
엑스큐어(주)	- 스마트카드, 보안 솔루션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 중임 - USIM, eSIM 등 통신용 카드와 자체 COS 기술을 보유 중임 - 국내외 주요 통신사 및 금융기관에 카드 및 보안 솔루션을 공급 중임 - 바이오메디컬, IoT·헬스케어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음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그 외 (주)티머니, (주)에이스카드넷 등의 기업이 스마트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스마트카드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III. 기술분석

결제 서비스 등 핀테크에 대한 자체 기술력 보유

동사는 자체 개발한 IC 칩 기술 기반의 디지털 인증(DID)과 운영체제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 및 인증 분야에서 높은 보안성과 다양한 응용성을 갖춰 국제규격(EMV)의 결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카드 제작 기술도 확보하였고, 모빌리티, 블록체인 등 신사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역량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주요 사업

동사는 크게 네 가지 부문(디지털 인증·결제·모빌리티·블록체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인증 분야에서는 IC 칩 기반의 강력한 보안 및 신원 인증 플랫폼을 제공하며, 결제 부문에서는 국제 표준(EMV, Europay, Mastercard, and Visa)을 준수하는 코나카드와 지역화폐 등 다양한 결제 솔루션을 통해 공공 및 민간시장에 통합 결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어서 모빌리티 사업에서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교통카드 정산 등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고, 블록체인 사업에서는 자체 메인넷과 지갑, 설문·투표·토큰 발행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신뢰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동사는 현재 스마트 카드 및 전자 화폐 사업을 중심으로 코나머니 가맹점/사용자 유치를 통한 플랫폼 사업과 은행·카드사 등의 S/W 개발 사업 등을 통해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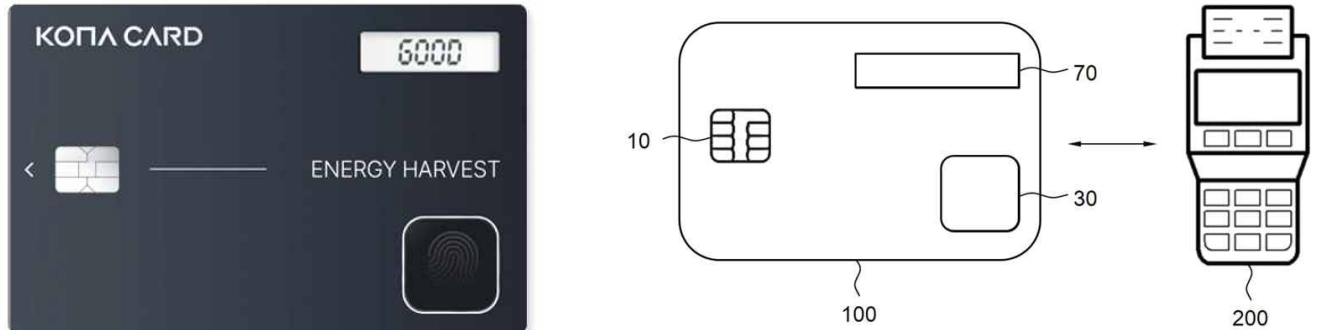
표 4. 동사 사업군

구분	제품 또는 서비스	주요 특징 및 기능
디지털 인증	IC 칩, 스마트카드, MONA	- 위조, 복제가 불가능한 IC 칩은 금융카드, USIM, 전자여권 등에 내장되어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함 - 메탈, 목재, 친환경 소재(R-PVC) 등 다양한 소재의 카드를 제작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보유 - 자체적으로 만든 USIM OS를 기반으로 코나아이의 지역 커뮤니티, 결제 플랫폼 등과 결합한 알뜰폰 브랜드 MONA 서비스
결제	코나카드, 코나비즈, 코나플레이트, 지역 커뮤니티	- 코나아이에서 직접 발행하는 선불카드로 자주 사용하는 계좌와 연결하고,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여 국내 및 해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 10인 기업도 도입 가능한 기업용 카드로, 출입·사원증·복지포인트 사용 등 한 카드로 여러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 있음 - 간단한 오픈 API 연동을 통해 90일 안에 자체 결제 서비스를 도입 가능함
모빌리티	코나모빌리티 택시호출, 코나애플리케이션	-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에 택시호출을 연계한 서비스 - GPS 방식에 바퀴 회전수로 요금을 책정하는 OBD(On Board Diagnostics) 방식을 접목하여 GPS 음영지역에서도 정확한 요금 계산이 구현됨
블록체인	코나블록체인, 코나리서치 마케팅 플랫폼, 뉴커머스 플랫폼	- 기업, 기관, 서비스별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으로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는 기술력 제공 -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평가, 설문 및 여론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과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 - 실물 자산의 토큰의 발행부터 판매, 유통을 지원하며 사업자에게는 쉬운 발행과 판매 채널 구축을, 고객에게는 상품 교환과 투자의 가치 및 편리성을 제공

출처: 동사 홈페이지 발췌(202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스마트카드 기술

그림 6. 동사 개발 지문 스마트카드



출처: 동사 홈페이지(2025) 발췌, 등록특허공보 제10-2499625호

동사는 지문 스마트카드 관련한 등록특허를 ‘지문입력부를 포함하는 멀티 카드 및 이를 이용한 결제 방법(제 10-2499625호)’ 포함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 개발 지문 스마트카드는 카드 소유자의 지문을 직접 인식해 별도의 비밀번호나 서명 없이 2단계 인증이 가능하고, 사용 시에만 전원이 켜지는 방식과 카드 리더기 접촉 시 자동 충전되는 구조를 채용하여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해 신용카드 유효기간(약 5년) 동안 별도 충전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접촉·비접촉식 결제 모두 지원 가능하다.

■ IC 칩 기술 기반의 디지털 인증(DID, Digital ID) 기술

동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칩 운영체제(COS)를 기반으로, 내부에 컴퓨터 CPU와 유사한 자체 연산 기능을 갖춘 IC 칩을 제공하고 있다. 이 칩은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다양한 보안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으며, VISA, Mastercard, AMEX 등 글로벌 결제 브랜드사의 결제 규격을 모두 충족해 전 세계 90여 개국에 메탈카드, 지문카드, 하드웨어 월렛 등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카드와 보안 매체 형태로 적용된다. 또한 동사는 국내 최초로 NFC USIM(Near Field Communication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을 상용화해 통신사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자여권, 신분증, 금융 IC 카드 뿐 아니라 IoT, AMI(지능형 원격검침 인프라), 커넥티드카 결제, 디지털 자산 관리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밖에 동사는 IC 칩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DID(Digital ID, 디지털 인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DID는 개인의 신원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 네트워크에 저장·관리하는 기술로, 데이터 위·변조와 해킹 위험을 크게 줄이고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한다. 동사는 자체 칩 운영체제와 보안 반도체(SE, Secure Element, 물리적 보안칩)를 활용해 DID에 필요한 핵심 기술(암호화 키 저장, 전자서명, 안전한 인증 등)을 제공한다.

해당 DID 기술은 금융, 공공, IoT,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원 인증, 전자서명, 디지털 신분증, 지문카드, 하드웨어 월렛 등으로 응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IC 칩 기반의 스마트카드에 공인인증서를 내장해 NFC로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하거나, FIDO U2F(2차 인증), PKI 보안토큰 등 다양한 인증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 연구개발 활동

동사는 1998년 기술연구소 설립 이후 핀테크, 결제 플랫폼, IC 운영체제, 인증 및 보안 등의 기술 개발을 수행해 왔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경상연구개발비)은 2022년 8.17%, 2023년 7.36%, 2024년 6.68%로 확인되며, R&D 투자를 매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표 5. 동사 R&D 담당 조직

조직	주요 업무
시스템운영실	- 결제 플랫폼 서비스 시스템 운영(IDC센터) 및 품질 검증 - 본사, 그룹계열사 정보 보안 및 인프라 관리 -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결제플랫폼개발실	- 국제표준 규격(EMV)의 선불 결제 기반 핵심 플랫폼 개발 - OPEN API 개발자 센터 및 플랫폼 개발 - 지역화폐 플랫폼 및 지자체 앱, 웹 개발 - 택시, 기부, 배달 등 부가서비스 플랫폼 개발
디지털ID개발실	- 자바(JAVA) 오픈 플랫폼 기반의 IC Chip OS(Operating System)인 COS 개발 -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여권 등의 IC 칩 기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인증 - 이동통신망에 가입자의 인증, 보안 기능을 위한 USIM 카드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5.0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최근 연구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USIM과 선불 플랫폼 등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5G USIM 개발’, ‘코나카드(구, 코나머니) 선불 플랫폼 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USIM과 선불 플랫폼의 활용 분야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6. 동사 R&D 과제

주요연구과제	연구결과 및 개발효과
5G USIM 개발	- 5G Non-Standalone 망인증을 위한 Transitional SIM 개발 - 기존 LTE Core를 활용하여 단말과 중계기 구간 5G 서비스 이용 - 기존 LTE USIM과 호환되어, 5G/LTE 모두 대응 가능
코나카드(구, 코나머니) 선불 플랫폼 개발	- EMV 글로벌 표준규격에 맞는 HCE기반 온/오프라인 선불카드 결제 시스템 - PCI-DSS 인증을 취득하여 글로벌 진출 기회를 획득함 - 커머스 개발을 통한 온라인 결제 기능 개발
택시 콜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지역화폐 부가서비스 기능으로 탑재하도록 개발 - 택시기사와 택시 이용자 간 빅데이터 기반 매칭 기술을 활용하여 택시 운행 수익 증대의 가치를 제공하고, 택시 이용자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
피트니스 활동 기반 리워드 서비스 플랫폼	- 걷기 활동으로 적립된 환경 마일리지와 지역화폐를 연동한 시스템 구축 - 자가 건강관리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5.05.),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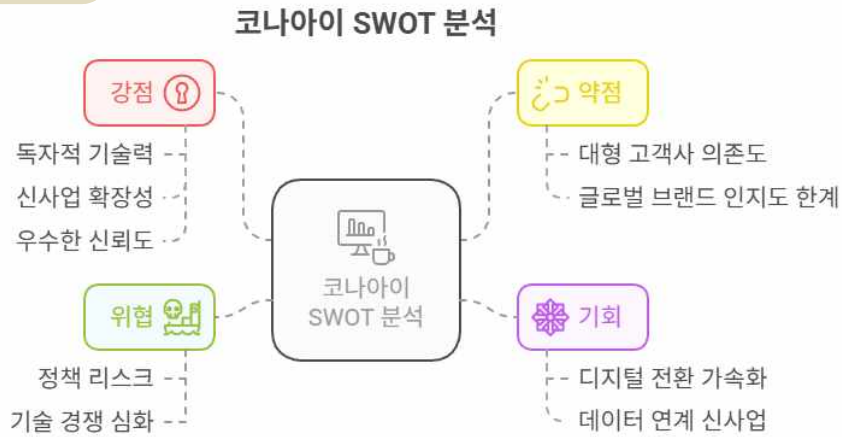
■ 기술 진입장벽

기술적 권리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확보한 지식재산권은 사업보고서(2025.03) 기준 국내 특허 등록 69건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 특허로는 ‘자동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을 위한 IC 칩(10-2617228호)’, ‘거울 신용카드 및 그의 제조 방법(10-2775601호)’, ‘비콘과 연동하여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 및 그 방법(10-2544540호)’ 등이 있으며, 핀테크, 결제, 스마트 카드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 관한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 동사는 결제에 필수적인 EMV 인증을 비롯하여, PCI-DSS(신용카드업계 보안 표준) 인증, ISO27001(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을 취득해 글로벌 표준 인증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1년 국내 최초로 마

스터카드 지문카드 제품인증을 획득하였고,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취득하여 결제 플랫폼(코나카드, 지역화폐)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SWOT 분석



1. 강점 (Strengths)

- 독자적 기술력 보유: EMV 국제규격 기반의 독자적인 스마트카드 및 결제·인증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칩 운영체제(COS, Chip Operating System) 설계 및 운영 역량이 뛰어남
- 신사업 확장성: 디지털 ID, 모빌리티 결제, AI·IoT 융합,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사업 운영 경험을 보유하여 신사업 확장성이 높고, 맞춤형 솔루션 제공 및 신속한 기술 지원에 강점이 있음
- 우수한 신뢰도: 국내외 공공·민간 인증·결제 시장에서 높은 신뢰성과 고객만족도를 확보함

2. 약점 (Weaknesses)

- 대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 특정 대형 금융사나 공공기관 등 일부 고객사에 대한 거래 비중이 커 해당 고객사의 발주 축소나 정책 변화, 계약 종료 등의 리스크가 존재함
-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한계: 세계 시장은 Thales, IDEMIA, Giesecke & Devrient 등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넓은 유통망, 오랜 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3. 기회 (Opportunities)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공공·민간 인증시장 확대, 글로벌 핀테크 시장 성장, 비대면 결제 수요 증가 등 외부 환경 변화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신사업 기회 확대: 정부의 지역화폐, 디지털 ID, 스마트시티 등 정책 지원 확대와 연계된 신사업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4. 위협 (Threats)

- 정부 정책·예산 축소 등 정책 리스크: 국내외 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잠재적 위협 요소로 작용함
- 경쟁 심화: 글로벌 대형 IT·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IV. 재무분석

2024년 매출 감소에도 수익성 개선으로 당기순이익 증가

동사는 2023년까지 매출액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4년 스마트카드 및 플랫폼 수수료 매출이 감소하며 성장이 저해되었다. 그럼에도 원가관리 및 금융수지 개선으로 수익성은 개선되어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당기순이익 규모는 확대되었다.

■ 2024년 매출 소폭 감소

동사는 결제 플랫폼과 디지털 ID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결제 플랫폼 부문에서는 EMV 국제규격 기반의 Open API 결제 시스템과 지역화폐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며 B2C·B2B·B2G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ID 부문에서는 칩 운영체제(OS)를 탑재한 반도체 모듈 및 보안 카드, 하드웨어 월렛을 공급하며, 전 세계 90여 개국에 수출 중이다. 특히 TSM 기반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IoT, 전자여권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동사는 2022년 2,422억 원의 매출을 시현한 후, 2023년 애플터기 인프라 구축에 따른 일회성 매출 260억 원이 발생하는 등 매출이 2,80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4년 매출은 2,363억 원으로, 플랫폼 부문에서 지역 화폐 정부 예산 축소 및 BC카드 소송 1심 결과에 따른 회계적 매출 차감 89억 원 등의 영향으로 2023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2025년 1분기 매출은 5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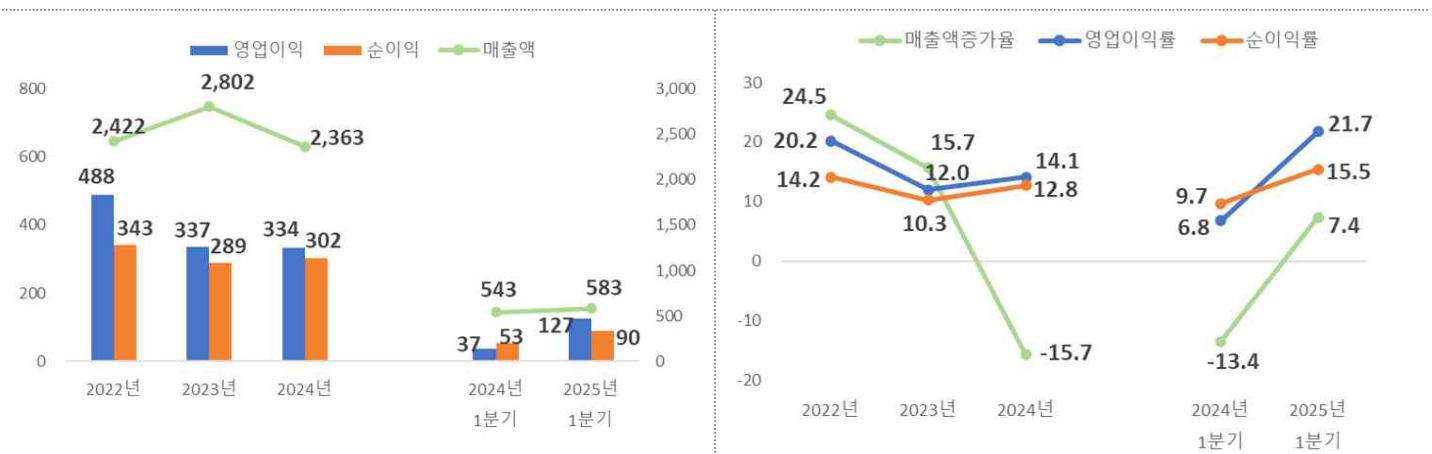
■ 매출 감소하였지만,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상승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5.7% 증가하였으나 원가율이 상승하며 영업이익은 337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법인세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도 289억 원으로 2022년 대비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439억 원 감소하였으나 원가관리를 통해 영업이익률은 2023년 12.0%에서 2024년 14.1%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당기순이익은 금융수지 및 기타수지 개선으로 2023년 289억 원에서 13억 원 증가한 302억 원을 기록, 순이익률이 10.3%에서 12.8%로 상승하였다. 2025년 1분기에는 매출 증가와 더불어 수익성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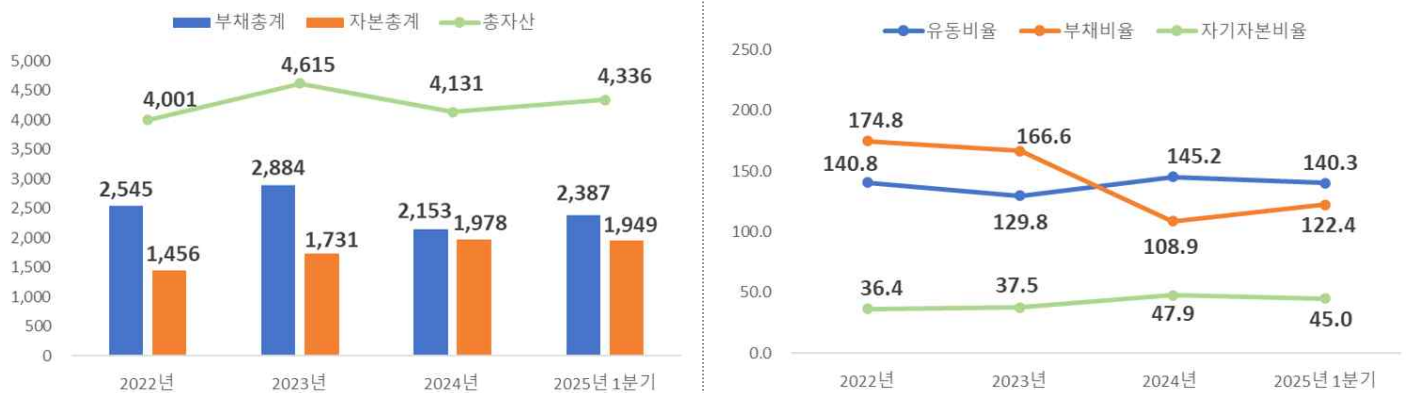
■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모두 양호 추세

2023년, 전년 대비 부채총계가 339억 원 증가, 자본총계가 275억 원 증가하며 총자산이 614억 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유동비율은 124.9%, 부채비율은 166.6%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한편, 2024년 기타유동수취채권, 재고자산 등이 감소하였으나 미지급금 등 유동부채도 감소하며 유동비율이 145.2%로 상승하였다. 유동부채 감소로 부채총계는 전년 대비 731억 원 감소하였으며, 부채감소와 더불어 부채비율도 108.9%로 전년 대비 57.5%p 하락하였다. 자본총계는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1,978억 원을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은 상승세를 지속하여 2023년 37.5%보다 10.4%p 상승한 47.9%를 기록하였다. 2025년 1분기에는 부채총계가 증가하고 자본총계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인 재무지표를 고려하면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림 8.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7.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1분기	2025년 1분기
매출액	2,422	2,802	2,363	543	583
매출액증가율(%)	24.5	15.7	-15.7	-13.4	7.4
영업이익	488	337	334	37	127
영업이익률(%)	20.2	12.0	14.1	6.8	21.7
순이익	343	289	302	53	90
순이익률(%)	14.2	10.3	12.8	9.7	15.5
부채총계	2,545	2,884	2,153	2,689	2,387
자본총계	1,456	1,731	1,978	1,718	1,949
총자산	4,001	4,615	4,131	4,407	4,336
유동비율(%)	140.8	129.8	145.2	128.1	140.3
부채비율(%)	174.8	166.6	108.9	156.5	122.4
자기자본비율(%)	36.4	37.5	47.9	39.0	45.0
영업현금흐름	-6,847	200	329	-79	329
투자현금흐름	-141	-406	-173	-41	-186
재무현금흐름	-302	150	-160	-18	-46
기말 현금	1,552	1,497	1,498	1,361	1,596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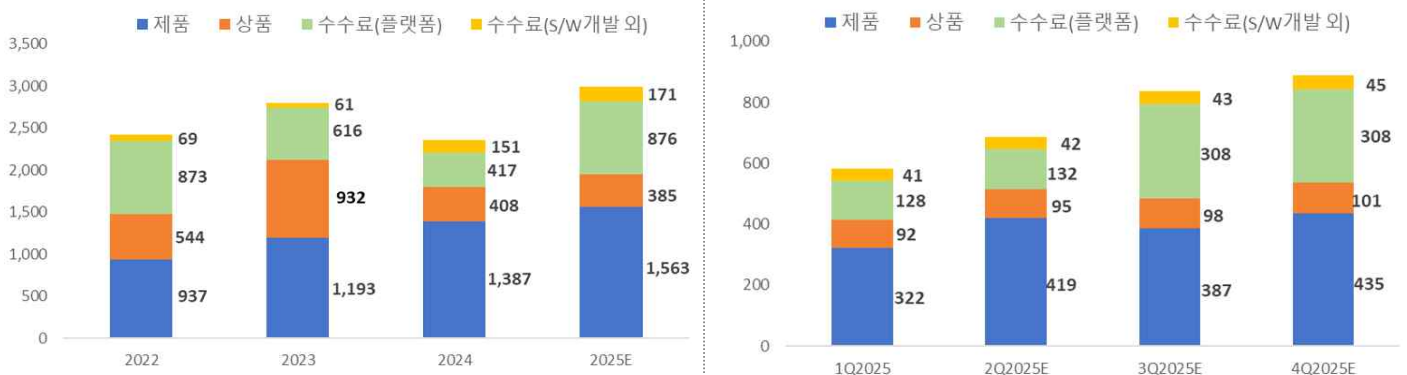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연간 매출은 2022년 2,422억 원, 2023년 2,802억 원, 2024년 2,363억 원으로, 2024년 매출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는 2023년 일회성 매출(260억 원) 인식 및 2024년 회계적 매출(89억 원) 차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플랫폼 부문의 서비스 고도화와 더불어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 추경 확정 및 6월 교부 예정, 디지털 ID 부문의 수익 기반 확장을 바탕으로 매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결제 플랫폼 부문에서는 약 1,7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코나카드’를 중심으로 B2C, B2B, B2G 전 부문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 온라인 송금, 다양한 제휴 할인 혜택 등 사용자 기반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해외결제 및 외국인 대상 서비스 확장도 본격화되고 있어 신규 수익원 창출이 기대된다. 디지털 ID 부문에 있어서는 칩 운영체제(COS) 기반의 독자 기술을 중심으로 금융, 공공, 통신 분야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메탈카드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로 확대 전략의 가시화 및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이슈에 따른 실적 증가가 예상되어 2025년에는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표 8. 동사의 사업부문별 연간 실적 및 분기별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2	2023	2024	2025E	1Q2025	2Q2025E	3Q2025E	4Q2025E
매출액(억 원)	2,422	2,802	2,363	2,995	583	688	836	888
제품(KONA카드, 콤비카드, 통신카드)	937	1,193	1,387	1,563	322	419	387	435
상품(COB외)	544	932	408	385	92	95	98	101
수수료(플랫폼)	873	616	417	876	128	132	308	308
수수료(S/W개발 외)	69	61	151	171	41	42	43	45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전자화폐 사업 강화와 신사업 성장을 통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 추진

코나아이는 디지털 결제 및 핀테크 시장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결제 및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 등을 통해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One Engine, Multi-Use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전자화폐 사업 강화

동사는 2003년 스마트카드 COS를 자체 개발한 기술력과 2016년부터 1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자체 개발한 국제 표준 결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카드 디자인부터 발급, 제작, 운영, 결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8년 국내 최초로 IC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을 인천에 도입하면서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했다. 동사는 2019년 경기지역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사업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며, 2025년 4조 원 규모의 경기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 재선정 되면서 3년의 협약 기간을 체결하였다. 동사는 지역화폐 플랫폼에 배달 서비스, 지역 콜택시 서비스, 지역 물 서비스, 기부 서비스, 지역 여론 및 설문조사 서비스 등을 탑재하여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서비스를 발굴 및 적용하고 있고,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써 지역 사회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탑재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축소 등으로 수수료 매출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플랫폼 개방 및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용자 유인을 통해 전자화폐 선도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으로 인해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불카드의 발급, 결제 승인, 가맹점 정산 등 선불카드 발행과 결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제공하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 ‘코나 플레이트’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 모빌리티 및 블록체인 신사업 성장을 통한 수익 모델 다각화

동사는 2021년 택시 호출 및 자동 결제 플랫폼을 출시하고, 2023년 GPS 방식에 바퀴 회전수 방식을 접목하여 요금을 책정하고 OTA(Over The Air) 기술로 각종 복합 요금 정책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구현하여 요금 변경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코나애플미터’를 출시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 면허’를 획득하여 가맹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HYPER LEDGER FABRIC 기반의 독보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NCP(뉴커머스 플랫폼), 미술품, 자산관리, STO(Security Token Offering)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출시하여 블록체인 사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국내 최초로 지역화폐 연계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INTERGRAF ISO 14298 인증을 획득하고 금융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DID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의 기술력을 입증하였는바, 이를 바탕으로 신사업을 성장시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

☑ 프롬프트: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코나아이는 2025년 들어 지역화폐, 디지털 인증, 유심(USIM) 등 다양한 핀테크·스마트카드 사업을 전개하며 전국 100여 개 지자체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역화폐 발행액은 약 15조 원에 달하며, 통신사

코나아이(052400)

와의 유심 사업, 금융·공공기관 대상 스마트 인증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또한, AI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드라이버 어시스턴트), 디지털 ID, STO(토큰증권) 등 신사업을 준비 중이며 2029년까지 매출 6,500억 원, 영업이익 1,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나아이는 디지털 금융·공공 인프라 시장에서 기술력과 사업 확장성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출처: Chat GPT

코나아이는 최근 신개념 결제 플랫폼 ‘코나 플레이트(KONA PLATE)’ 및 대체투자 자산관리 솔루션 ‘키와(KIWA)’ 등 서비스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관련 테마 부각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 5월 16일 기준 전일 대비 8.3%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지역화폐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지역화폐 추가 예산 확보로 거래량이 증대된다면 더 큰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처: 뽀튼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	-	-
최근 6개월 내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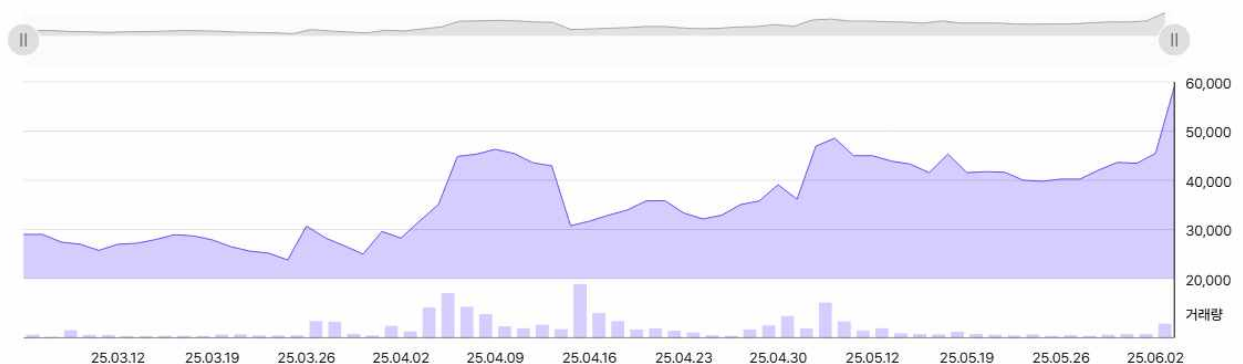
052400 코스닥

기준: 2025.06.04 | 단위: 원, 주, %

59,000 ▲13,550 +22.97%

전일 45,450 고가 59,000 거래량 4,489,986 주
시가 55,500 저가 50,200 거래대금 253,566 백만원

1주일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자료: NICE BizLINE(2025.06.0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코나아이(주)	O	O	X

2025년 5월 9일 스팸관여과다종목으로 투자주의종목 지정한 바 있음.

2024년 4월 10일 투자경고종목 지정, 2024년 4월 24일 지정해제한 바 있음.